

조선의 역사를 민중의 눈으로 다시 본다

조선 500년의 거짓말

김학준 지음

“...노비문서를 볼 질러 강상을 무너뜨렸으며, 토지를 평균 분작하여 국법을 흐리고 어지럽혔으며, 대군을 몰아 왕성을 핍박하고 정부를 부수버리고 새 나라를 도모했으니 이는 곧 반역을 범한 것이니라.”(박영호 내부대신)

“동학도는 과거의 잘못된 세상을 고쳐 다시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나온 자들이다. (...) 자기나라 백성을 쳐 없애기 위해 외적을 불러들였으니 네 죄가 가장 중대한 데 도리어 나를 죄인이라 이르느냐?”(전봉준 장군)

1895년 1월, 서울로 압송돼 온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장군을 심문하는 박영호와 오간 대화이다. 저자는 신간 '조선 500년의 거짓말'에서 “전봉준과 박영호의 대화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명색이 근대를 지향한다는 개혁파 관료 박영호의 사고가 봉건적 지배 사립과 엘리트주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일본을 등에 업고 출세한 박영호의 현실인식이 이미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동시대의 보편적 세계관을 초월한 전봉준의 생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인류의 역사에 흥미를 느낀 평범한 독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저자는 신간 ‘들어가는 말’에서 ‘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자신의 역사관을 밝힌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내내 잊지 않으려 한 믿음이 있습니다. 민중을 배제하고 나면 그 시대 역사는 절반도 알

지 못하는 것이며, 역사의 주체를 지배계급으로 국한한 역사는 절반의 진실도 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신간 부제는 ‘민중의 눈으로 다시 쓴 조선역사’이다. 저자는 ‘애민(愛民)’, ‘사림(士林)’, ‘사대(事大)’, ‘반정(反政)’, ‘민란(民亂)’ 등 5개 주제로 나눠 500년 조선의 역사를 서술한다. 왕조나 지배계급이 아닌 민중의 눈에서 바라본 조선 역사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조선 왕조의 ‘애민’과 ‘민생’은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전략이었고, ‘사림’의 주류인 보수 사림 사대부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주희 성리학을 추종한 세력이었다. ‘보수 사림’에 맞섰던 이언적과 조식, 정인홍 등 ‘진보 사림’도 존재했다. 저자는 조선 멸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조선의 임금과 양반 사대부들이 중국 중심의 천하관과 다른 어떤 국제 질서에도 무지했고, 또 관심조차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연산군과 광해군을 몰아냈던 ‘반정’ 이후 백성들은 “권력과 풍요를 독점하고 세습하려는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한 자들의 도적질”을 겪었다고 말한다. 19세기 조선은 민란의 시대였다. 흥경래 난



서울 경복궁을 찾아 수문장 교대식을 지켜보고 있는 관광객들. /연합뉴스

(1811년)과 임술년 농민항쟁(1862년), 동학농민혁명(1894년) 등으로 이어졌다. 저자는 농민군을 ‘전쟁에서 지고도 역사의 승자가 된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역사적 위상을 부여한다. 5개의 주제로 바라본 조선 왕과 지배계급의 위선과 탐욕, 반민중적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민중의 눈높이에 따라 본 신간 책장을 넘기다 보면 ‘오늘’의 역사와도 오버랩된다. 민생을 도외시하는 권력 속성과 부(富)편중, 당쟁, 사대(事大) 등이 요즘 상황과 똑같음을 깨닫는다. 여야가 격돌하는 현 정치상황과 민생문제를 풀어나갈 해법이 과거 조선 500년 역사에 담겨있음을 신간을 읽으며 절감할 수 있다.

〈인문서원·2만5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운 책

▲묘묘탐정=사라진 고양이를 찾아 귀가사키는 ‘묘묘탐정’이 반려 탐정묘 ‘몽몽’과 함께 조사에 착수한다. 골목을 걷다 우연히 만난 흰 고양이는 업계 실력자로 알려진 탐정 ‘김완백’이 쫓던 그 고양이다. 3년여 시간이 흘러 유명세를 탄 묘묘 탐정 사무소에 어느 날 의뢰서 한 건이 도착하고, 고양이 ‘영심’은 이웃집 회색 고양이 ‘드드’에게 유괴됐다고 주장한다. 수사의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 범인을 발견하고 사건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 〈나무옆의자·1만5800원〉

▲돈의 뇌과학=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뇌과학과 심리학이 꼭 필요하다. 돈 문제를 심리적 측면에서 다루는 ‘파이낸셜 테라피’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NLP)에 접목하는 뇌과학을 다뤘다. 단순히 돈만 공부해서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없기에 자본을 모으는 신념에 대해서 알려준다. 인생 계획부터 재무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며 우리 뇌가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토크한다. 〈동양북스·1만8000원〉

▲비판적 에코페미니즘=기존의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변혁 지향의 페미니즘’ 이상의 논지를 다룬다. 철학자 밌 플럼우드와 ‘다르게 질문하기’ 전략을 활용해 인류의 신체 개념을 넘나드는 경험과 돌봄 지향의 비판적 에코 페미니즘을 제시한다. 〈푸른역사·1만7900원〉



학계와 현장에서 신뢰받는 연구자 다섯 명의 번역을 통해 교차성 이론, 기후위기 등을 둘러보는 한편, 우주로 발사된 동물들의 사례를 다룬다. 기후정의와 클라이미 피어 서사 등 새로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제언도 실렸다. 〈창비·2만5000원〉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구술, 사료 등에서 발견한 한국사를 조망한다. 해방 직후의 중학교 입시제도 변화나 인공치하 전후 좌우익의 아비규환, 영화관 지정좌석제 도입 배경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이외 아산 지주의 왜정살이와 황금광 열풍 등 다채로운 사건들을 둘러본다. 〈푸른역사·1만7900원〉

일하는 여자들이 쌓아온 전투적 노동운동의 역사

체공녀 연대기, 1931-2011

남화숙 지음, 남관숙 옮김

‘체공녀’라는 생소한 단어와 ‘강주룡’이라는 낯선 이름을 처음 만난 건 장편소설 ‘체공녀 강주룡’ (2018-한겨레출판사)이었다. 소설의 모티브가 된 여성 강주룡의 삶은 1931년 5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 한장과 기사가 잘 보여준다.

평양의 울밀대 지붕 위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한 여성의 사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데, 그가 지붕 위에서 사람들에게 향한 연설은 더 인상적이다. 평원과 무에서 일하는 그는 공장측의 잘못을 규탄하고 공장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알렸다. 부당한 임금 삭감이 관철될 경우 평양의 고무 노동자 2000여명에게 그 영향이 미칠 것임을 설파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간 그는 “근로대중을 대표하여 죽음을 명예로 알 뿐”이라고 말했다.

노동사학자 남화숙의 ‘체공녀 연대기, 1931-2011’은 192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 세기에 걸친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총망라 복원해 낸 책으로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놓지 않았던 여성들의 연대기다. 제목에 등장하는 ‘2011년’이 상징하는 인물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35m 고공 크레인 위에 올라가 309일간 농성을 이어간 용접공 김진숙이다.

영어판 제목은 ‘체공녀들(Women in the sky)’로 아시아학회와 한국학 분야에 수여하는 ‘제임스 팔레 저작상’과 미국역사학회가 동아시아 역사 부문에 수여하는 존 페어뱅크상을 수상했다.

제대로 기억되고 말해지지 않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오랜 기간 이어졌다. 강주룡의 이야기를 출발로 식민지 시기 평양의 고무농장 여성 노동자들의 전투성에 주목한 저자는 해방 후 조선방직(조방) 부산공장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췄다. 조방 여성 노동자 1000여명이 참여한 1952년 쟁의는 1953년 노동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여한 핵심 쟁의였고, 사학자 나가오 미치코는 이를 “현대 한국의 노사 관계, 더 나아가 정치 시스템 전체의 스타트 라인”이라 규정한다.

여성 노동자들이 다시 노동 현장의 전투적 주체로 떠오른 것은 1970년대 섬유 전자 산업에서다. 공장 여성을 비하하는 ‘공순이’라는 말이 만연한 가운데 ‘성장 우선주의’ 이데올로기가 주류가 되면서 산업노동자에 대한 착취, 특히 여성에 대한 착취와 모욕은 심해졌고 그들의 고통과 투쟁 역시 지속됐다.

책은 페미니스트 의식을 키운 ‘여성해방운동 기수회’를 거쳐 최초의 여성 노조위원장인 등장한 통일방직의 투쟁 등을 통해 남성 중심 노조에 대항한 역사를 조망한다. ‘고공농성’의 주인공 김진숙을 통해서도 페미니즘과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질문도 던진다.

저자는 “역사 속 수많은 여성들은 자율적이고 대담하며 유능한 활동가로서 자질과 능력을 보여줬고, 노동하는 여성들의 공동체를 키우며 성장해 나갔다. 또 노동운동과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문화와 위계질서에 항의하고 때로는 이를 극복하면서 중요한 고비마다 민주적 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강조한다.

〈후미타스·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달리는 강하다=좀비 사태로 인해 봉쇄된 도시에 소녀 ‘강하다’가 약자들과 함께 남겨진다. 그녀는 할머니만 두고 홀로 떠날 수 없어 마을에 머무르기로 결심한다. 같은 반 남학생 은우와 태어난 지 50일도 안 된 사람이, 여덟 살 지만이 등 저마다 사정을 지닌 이들은 지혜로운 할머니와 유대감을 형성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래빗출·1만5000원〉

▲너에게 넘어가=평생을 인전에서만 살아온 미미, 지훈, 다연은 난생처음으로 한강 공원으로 여행을 떠난다. 지하철 환승부터 맛집까지 미리 체크해 두었으나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계획은 무산이

된다. 각자의 개성을 지닌 세 인물은 포기하지 않고 행복을 찾아 나선다. 아이들은 노란색 텐트 하나를 통해 작은 행복과 기적을 발견한다. 〈창비·1만2000원〉

▲거북이는 원래 빨랐다=달리기왕 썬썬 거북은 난생처음 보는 물건 덕분에 토끼보다 빠른 스피드를 갖게 됐다. 거북은 눈만 뜨면 친구들에게 경주를 제안했고 달린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 나니 오히려 기쁘지 않다. 모든 걸 이룬 뒤 다시 느릿한 거북이로 돌아가는 주인공의 독특한 선택이 이어진다. 〈파란자전거·1만6000원〉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